안전보건으로 미래를 꿈꾸다

LG이노텍 | 보건관리 선행지표 컨설팅

글 윤혜원 **사진** 김재이

**LG이노텍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의 핵심 소재·부품 개발 및 생산을 통해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
높아진 기술력만큼 안전보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며 안전보건기획팀의 책임도 무거워졌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보건기획, 안전기획, 소방기획, 안전문화를 담당하는 각 팀원이 모여
LG이노텍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고 있다.**

사람을 위한 일터

안전보건기획팀은 LG이노텍 직원들의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더 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점검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LG이노텍은 특히 광학솔루션, 기판소재, 전장부품 사업부와 같이 다양한 사업부를 갖추고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안전보건기획팀은 공통 기준과 중장기 지표를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사업부마다 고객사의 요구사항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통 기준을 만들되 각 사업부의 특화된 부분은 별도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컨설팅을 요청하게 된 것도 중장기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에요."

홍승식 안전보건기획팀장은 최근 공장 신규라인의 자동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람 손길이 있어야만 가능한 공정들이 여전히 있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산업보건협회와 보건관리 선행지표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보건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게 된 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아직은 법 자체가 안전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건 관련 지식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번 컨설팅을 통해 보건 분야의 중요성을 임직원들에게 인지시킴으로써 LG이노텍의 향후 발전을 위한 도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CPR로 생명을 구하기까지

LG이노텍은 임직원들이 안전과 보건 관련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 배경에는 꾸준히 안전문화 지수를 측정하고, 관련 활동을 기획한 안전보건기획팀이 있었다. 생산 라인은 안전문화 활동이 가장 자율적이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임직원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계층별로 다양하고 특화된 안전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경영진 및 리더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리더십 교육과 안전의 날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임직원 맞춤형 안전문화 평가 Tool개발 및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

“안전은 소나기고, 보건은 가랑비라는 말이 있어요.
안전과 다르게 보건은 유해 요인이 발생해도 쉽게 알지 못하거든요.
그만큼 보건 분야에서도 선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건 쪽도 마찬가지예요. 응급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CPR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직원들이 응급상황에서 CPR로 협력사 직원들을 살린 적도 몇 차례 있어요. 올해는 전 임직원 70% 이상 CPR 교육을 수료했고 사업장별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사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전 임직원이 CPR 교육 10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 보건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연속혈당기 부착 14일간 실시간 당뇨수치를 확인하고, 식이 및 신체 활동을 기록하여 운동처방사와 영양사의 관리 후 개선도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혈당관리 시스템과 혹서기 및 혹한기에 생체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스마트 워치, 어플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만성질환 서비스가 그 예다. 또, 국내 및 해외 의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24시간 간호사와 응급의학과 교수 건강상담이 가능하며, 3차 의료기관진료 예약대행,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에 이제 막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지만, 안전보건기획팀의 열정은 LG이노텍의 무궁무진한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보건기획을 담당하는 김내기 선임과 주사랑 선임은 “컨설팅이 안전한 미래를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기존에 관리하던 지표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를 만들고자 했어요. 이 지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개발할 예정입니다. 선행 관리하는 법을 배우다 보니 보건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죠.”

LG이노텍의 '상생' 지붕, 안전보건기획팀

2025년을 앞둔 시기, 안전보건기획팀은 안전환경 중장기 로드맵 준비 업무로 분주하다. 내년 상반기에는 병원과 연동해 검진 알림을 확인하고, 상담까지 한번에 통합해 유소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사 통합 보건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보건뿐만 아니라 안전 분야에도 SIF(Serious Injury&Fatality)를 통해 고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안전 작업 목록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잠재적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줄이려고 합니다. 특히 발생빈도는 낮아도 한번에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또, 협력사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형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지원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겁니다.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죠."

LG이노텍은 사업장이 다양한 만큼 안전보건활동을 진행했을 때 반응도 활발한 편이다. 그렇기에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안전보건 관련 인식을 개선하려는 자체포상 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안전보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 지속되고 있다. 주사랑 선임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은 소나기고, 보건은 가랑비라는 말이 있어요. 안전과 다르게 보건은 유해요인이 발생해도 쉽게 알지 못하거든요. 몇십 년 후에 뒤늦게 발병이 되었을 때 알아차리면 이미 늦죠. 그만큼 보건 분야에서도 선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있어 '적당히'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전보건기획팀. 매일 바삐 움직이는 그들의 책임감 속 안전·보건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LG이노텍은 더욱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

Mini Interview

"직원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안전보건기획팀 홍승식 팀장

Q. LG이노텍 안전보건기획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보건기획팀은 전사의 안전, 보건, 소방 관련 기획 업무를 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업무, 시스템 개발·기획, 지침 제정 등의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임직원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업장을 구현하고 건강 친화적인 기업문화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안전보건 부문 다짐과 포부를 들려주세요.

우리의 현재를 지키는 일이 안전이라면 보건은 임직원과 그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안전보건 부문은 미리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컨설팅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LG이노텍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까지 모두가 일하기 좋은 일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